

섬유 · 패션 지원펀드 100억원 조성

산자부, 섬유부문 지원위해 ... 나노기술 · 생명공학 관련기업 위주로

정부가 낙후된 국내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상당의 섬유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.

산업자원부는 대구·경북 및 경기지역의 패션섬유 및 산업용 섬유제조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100억원 상당의 <섬유전문투자조합>을 2006년 상반기 중 결성할 계획이라고 2월27일 발표했다.

투자조합에는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가 30억원, 유관기관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지자체인 대구시가 4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.

나머지 30억원은 창업투자기업 등 민간 투자금융사가 맡게 된다.

섬유전문 투자펀드는 전체 펀드 가운데 60% 이상을 섬유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일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이다.

다만 수익성을 고려해 의류용 직물 생산이나 염색 등을 하는 기존 전통 섬유기업보다는 나노기술과 생명공학(BT)을 이용해 △초경량 투습방수 등 고기능성 섬유 △자동차용 고성능 타이어 코드 등 산업용 섬유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할 방침이다.

한편, 산자부는 창업투자기업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월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섬유전문투자조합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.

<화학저널 2006/03/02>